

# 방법론적 개체론과 전체론

오 창 희

## ● 목 차 ●

1. 서 론
2. 방법론적 개체론의 두 논지
3. 방법론적 개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4. 비개인적 설명

## 1. 서 론

전체론과 개체론 사이의 논쟁은 그 역사에 있어서도 매우 오래 뿐 아니라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분야 또한 매우 광범위한 주제이다. 예를 들면, 생물학에서 그것은 생기론(vitalism)과 기계론(mechanism)사이의 논쟁으로, 언어 철학에서 그것은 의미 전체론(holism)과 검증주의 의미론(verification theory of meaning) 사이의 논쟁으로, 과학 철학에서 그것은 세계관(Weltanschauung) 철학자들과 논리 실증주의자(logical-positivist)들 사이의 논쟁으로, 심리학에서 그것은 형태주의 심리학(Gestalt psychology)과 연상주의 심리학(association psychology) 사이의 논쟁으로, 사회 과학에 있어서 그것은 방법론적 전체론(methodological holism), 또는 집단주의(collectivism)와 방법론적 개체론(methodological individualism) 사이의 논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사회 과학에 있어서의 방법론적 전체론과 방법론적 개체론 사이의 논쟁은 그것이 단순히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론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정치적·윤리적 함축들 때문에 더욱 민감한 주제가 되고 있다. 사회 전체론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기능하며 사회 현상은, Comte의 표현을 빌면, '그 유기체의 필연적인 결과'이다.<sup>1)</sup> 만일 이러한 전체론의 주장대로 각 사람은 그가 통제할 수 없는 필연적인 사회·역사 법칙에 따라 그의 행위가 강요당한다면 그 행위에 대한 개인의 자유와 책임성의 여지가 없어질 것이다. 그 뿐 아니라 또한 사회가 각 개인들과는 독립된 하나의 독자적인 실재를 형성하며 각 개인은 단지 이 전체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 한 부분으로서만 기능할 뿐이라면, 이것은 곧 각 개인들은 사회(또는 국가) 전체의 목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고 하는 정치적 전체주의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주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윤리적·정치적 위기의식이 단순한 방법론적 관심과 더불어 방법론적 개체론자들이 모든 사회 현상들은 각 개

1) Gardiner[1959], p.80.

인들이 만든 것이라는 주장에 도달하게 된 암묵적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Hayek, Popper, Watkins, Agassi 등의 개체론자들은 그들 간의 사소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단지 각 개인들로 이루어진 구성물에 불과하며 또 사회 현상들은 개개인의 사람들이 행위한 결과라는 사실을 한결같이 강조한다. 그 뿐 아니라 그들은 이러한 사실들에 근거하여 모든 사회·역사적 현상들은 각 개인들의 행위로서 설명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적 개체론자들의 주장을 검토한 후 특히 사회적 설명의 문제에 있어서 이 주장이 갖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려고 한다. 그 전략은 대략 다음과 같다; 먼저 개체론자들이 개체론적 사회 설명을 주장하는 근거들을 검토하여 그 설득력이 미약하다는 것을 밝히며, 두번째 사회적 설명의 많은 경우에는 개체론적 설명 방식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비개인적·거시적 설명이 필수적임을 입증하려고 한다. 이 논문은 그러면서도 이러한 비개인적·거시적 설명을 수용하는 것이 개체론자들이 우려하는 사실, 즉 사회를 초개인적 실재로 보며 모든 사회 현상을 이 전체 사회의 필연적인 결과로 파악하는 전체론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하고자 한다.

## 2. 방법론적 개체론의 두 논지

방법론적 개체론의 논지들을 비판하기 전에 그것의 내용을 먼저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하자.

이 원리 [방법론적 개체론의 원리]에 따르면, 사회 세계의 궁극적 구성원들은 그들의 경향성들(dispositions)과 그들의 상황에 대한 이해에 비추어 보아 다소간 적절하게 행동하는 개별적 사람들이다. 모든 복잡한 사회적 상황과 제도, 혹은 사건들은 개인들과 그들의 경향성들, 상황들, 신념들 그리고 물리적 자원과 환경이 특별하게 연계된 결과물이다. 거시적인 사회 현상(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을 다른 거시적 현상(예를 들면 완전 고용)에 의하여 설명하는 미완성된(unfinished) 설명, 혹은 가설명(half-way explanation)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거시적 현상들의 설명을 개인들의 내적 관계들, 경향성들, 신념들 그리고 자원들에 대한 진술들로부터 연역해 내었을 때 까지는, 우리는 그것들의 근원적인(rock bottom) 설명에 도달한 것은 아닐 것이다.<sup>2)</sup>

Watkins의 이 설명에는 적어도 방법론적 개체론의 주요한 두 가지 논지가 나타나 있다.

첫째는 '사회'라고 일컬어 지는 것의 존재론적 성격에 관한 논지이다. 즉 사회는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적 상황이나 사건 등은 각 개인들이 특별한 방식으로 연계된 결과라는 것이다. Watkins가 여기서 사회가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를 하나의 유기적 전체로 파악하여 사회가 개인들의 의지와 목적과는 독립된 그 자신의 목적이나 의지를 가진 실재인 것 처럼 주장하는 전체론을 비판하기 위함이다. 사회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단순한 인공물이며 각 개인들이 없이는 사회는 전혀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집단 정신(Rousseau)이나 절대 정신(Hegel)과 같은 초개인적인 실재를 부정하고 있다.

2) Watkins[1957], pp.270~271.

둘째는 사회 현상에 대한 설명은 개인들의 내적 관계나 경향성들, 신념들에 대한 설명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방법론적 논치이다. Watkins는 거시적 사회 현상을 다른 거시적 사회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적 설명은 개인에 의한 설명이 되기 전까지는 어디까지나 미완성된 가설명일 뿐이라는 것을 그는 강조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상적인(ideal) 설명에 도달될 수 있으려면 거시적인 사회적 과정과 사건들은 궁극적으로 (a) 사회 구성원인 개인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원리들과 (b) 개인들의 상황에 관한 기술들로부터 연역함으로써 설명되어 져야 한다.<sup>3)</sup> 따라서 개체론자들에게는 사회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개인들이 처한 상황과 그것에 대응하는 개인들의 심리적 법칙을 발견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명만으로는 방법론적 개체론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예를 들면 방법론적 개체론은 사회 현상을 특정한 개인에 의해 의도되어 진 결과로만 간주한다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 방법론적 개체론자들은 다음의 설명들을 보충함으로써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려고 한다.

첫째 사회적 사건에 대한 개체론적 설명은 특정한 개인만을 지시할 필요는 없으며 익명적(anonymous) 개인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 Watkins에 따르면, 개체론적 설명은 특정한 개인의 특수한 신념에 의한 세부적 설명(explanation in Detail)과 일반적인(혹은 익명적인) 개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에 의한 원리적인 설명(explanation in principle)으로 나뉘어 지는데 이중에서도 개체론적 설명이 특히 잘 적용되는 것은 원리적인 설명이다. 즉 일반적인 사회 현상은 (그가 누구이든 간에) 각 개인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전형적인 경향성들을 나타낸다는 형식으로 잘 설명될 수 있다. 그는 이와 같은 익명적 개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성에 의해 사회 현상을 성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예로서 Menger, Jevons 등의 '한계효용 이론'과 Keynes의 '일반이론' 등의 경제 이론을 들고 있다.<sup>4)</sup>

둘째 방법론적 개체론은 그것의 특수한 한 형태인 '심리주의'(psychologism)나 또는 이것 보다 더 하위의 특수한 종류인 '사회음모설'(conspiracy theory of society)과는 구별된다. Popper에 따르면, 심리주의는 '모든 사회 생활의 법칙들은 궁극적으로 '인간 본성'의 심리적 법칙으로 환원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이론이며, 사회음모설은 '사회 현상의 설명이 수행해야 하는 것은 그 현상의 발생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발생하도록 계획하고 음모를 꾸미는 집단이나 사람을 발견하는 작업'이라는 견해이다. Popper는 방법론적 개체론을 이러한 심리주의나 사회음모설과 구별하면서 심리주의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sup>5)</sup>

첫째 '인간 본성의 법칙'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어려우며 또 인간 본성에 기인한 심리적 특성들과 사회의 산물인 심리적 특성들을 구별하기 어렵다. 본성처럼 보이는 것도 실은 교육의 산물이라고 간주할 증거들이 많이 있다.

둘째 사회가 개인을 규정한다는 경험적 반론을 피하기 위해 심리주의는 사회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제도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원초적 상태를 가정할 수도 있다. 이것은 순수한 본성이 사회와 제도를 형성하게 되는 최초의 상태를 확보함으로써 모든 제도들도 결국

3) Watkins[1952], p.88.

4) Watkins[1952], p.93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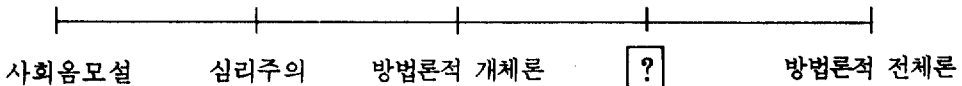
5) Popper[1966] ch.14. 세번째 비판은 곧 사회음모설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Popper는 음모자들의 음모가 성취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은 인간 본성의 산물임을 입증하려는 심리주의의 전략이다. 그러나 이 초기 상태에서도 인간은 인간이기에 앞서 사회적 존재이며 사회는 인간 심리 이전에도 존재한다. 예컨대 인간의 특징인 언어는 사회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초적 상태까지 무한히 후퇴하려는 심리주의의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

세째 대부분의 사회 제도들과 전통들은 상호 작용하는 개인들의 행위에서 파생된 의도되지 않은 (unintended) 결과들이다. 사회 과학의 과제는 이 의도되지 않은 행위의 결과들을 설명하려는 것인 반면, 심리주의는 이러한 사회 과학의 임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Popper 나 Watkins, Agassi 등은 방법론적 개체론이 이러한 심리주의와 구별되는 점으로서, 개인의 심리적 특성들은 사회적 상황에 의해 형성되며 사회 제도나 관습 등의 요소들은 이러한 사회적 상황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sup>6)</sup> 그들에 따르면, 방법론적 개체론은 다만 개인의 행위가 필연적인 역사 법칙에 의해 강제된 결과가 아니라 ‘그의 가변적 상황에 대해 개인이 일련의 의식적·무의식적인 대응을 한 결과’로 파악할 뿐이라는 것이다. Popper 는 그의 상황에 대해 개인들이 대응한다는 것을 ‘상황 논리’ (logic of situation)와 ‘합리성 원리’(rationality principle)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sup>7)</sup>

이상에서의 설명을 종합하면, 방법론적 개체론은 기본적으로 사회는 각 개인들이 상호 연계되어 나타난 구성물이며 사회 현상은 그 구성원인 각 개인들이 주어진 상황에 대해 다소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는 행위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요약된다. 이때 여기에서의 개인들은 익명적인 개인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 각 개인이 그 속에서 행위하게 되는 상황속에는 관습이나 제도 등의 사회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방법론적 개체론의 위상을 다른 이론들과 비교하여 다음의 도표로 나타낼 수 있겠다.



여기에서 [?]의 위치는 방법론적 개체론도 전체론도 아닌 제 삼의 입장으로서 이 논문에서 필자가 시도하려는 비개인적(non-individualistic)설명의 입장이다.

### 3. 방법론적 개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방법론적 개체론은 크게 사회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구성물이라는 존재론적 논지와 사회 현상의 설명은 개인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방법론적 논지로 이루어

6) 특히 Agassi 는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방법론적 개체론’이라는 표현 보다는 ‘제도적 개체론’(institutional individualism)이라는 표현을 더 즐겨 사용하고 있다.

7) ‘상황 논리’나 ‘합리성의 원리’와 같은 개념들은 개인들의 행위가 상황이나 역사 법칙의 강요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각 개인들이 그가 처한 상황들을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한 결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Popper 가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행위가 과연 그의 합리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 지는가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논의는 Chalmers[1985]를 참조하라.

져 있다. 8) 그런데 개체론자들도 주장하듯이 사회나 역사의 제 현상들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서도 방법론적 논지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의 논의의 초점을 방법론적 논지에 맞추어 진행하도록 하자.

개체론자들은 모든 사회 현상들은 개인들의 태도나 신념들, 그리고 그들이 속한 상황 분석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사회 현상들이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실제적으로 개체론적인 설명이 어려운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개체론적인 설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이러한 개체론자들의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대표적인 개체론자인 Watkins는 대략 다음의 세 가지를 들고 있는 것 같다.

- (1) 사회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구성물에 지나지 않는다. (존재론적 논지)
- (2) 역사를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다.
- (3) 개인들이 그것을 원한다면 어떠한 사회적 경향들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세 가지의 어떤 것도 방법론적 논지의 직접적인 근거는 될 수 없다. 먼저 사회는 개인들로 이루어 진다는 방법론적 개체론의 존재론적 논지부터 검토해 보자. 개체론자들에 의하면 사회는 개인들과는 독립된 독자적인 목표나 의지를 갖는 실체가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 구성된 추상적 대상, 혹은 이론적 구성물’(Popper, Hayek)이며, ‘개인들 사이의 관찰되지 않는 관계 체계’(Watkins)이다. 이처럼 사회를 개인을 초월하여 그 자체의 권리로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 보기를 거부하는 점에서는 방법론적 개체론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들의 의지나 목적을 초월한 절대정신이나 집단정신이 존재한다든가 사회가 개인들의 존재보다 우선한다고 하는 전체론의 주장들은 지지되기 힘들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이 곧 개체론의 방법론적 논지를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사회가 개인들로 구성된 구성물이라는 주장이 옳다 하더라도 이 사실에서 부터 모든 사회 현상들이 개체론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추론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방법론적 개체론의 존재론에 대한 동의는 곧 그것의 방법론에 대한 동의를 논리적으로 수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개체론의 존재론에 동의하더라도 그 방법론은 부정할 수 있으며 또 그 반대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이 양자의 관계에 대한 Watkins의 입장이다. 몇몇 비판론자들은 Watkins가 존재론적 논지와 방법론적 논지가 논리적으로 구별되는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9) 즉 Watkins는 전체론의 존재론을 부정하는 것을 개체론의 방법론을 수용하는 것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Watkins가 이들이 주장하는 것 처럼 존재론적 논지가 방법론적 논지를 필연적으로 함축하는 것으로 생각했느냐 하면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다.

8) 엄밀하게 따지면 방법론적 개체론이 존재론과 방법론의 두 논지로 구성된다는 말은 다소 어폐가 있다. 왜냐하면 방법론적 개체론이라는 것은 그 원래적 의미에서는 방법론의 문제에만 관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존재론에 관계된 개체론은 존재론적 개체론이라 함이 옳바를 것이며, 또 그 반대는 방법론적 전체론이 아니라 형이상학적 전체론일 것이다. 그러나 두 논지가 상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과, ‘방법론적 개체론’이라는 명칭이 일반적으로 방법론 문제 뿐 아니라 여러가지 문제들을 포괄한 견해에 대한 고유한 용법으로 고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이 용법을 그냥 따르고자 한다.

9) Nagel[1961] p.542. Goldstein[1958] p.279. Brodbeck[1958] pp.301-302. Lukes[1968] p.129. Gellner[1956] p.256.

…그러나 (1) 사회적 대상들이 개인의 태도들에 의해 만들어 진다는 평범한 진리와 (2) 사회적 구조들의 ‘불가시성’(invisibility)은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수반(entail)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다만 그것을 지지해(support) 줄 뿐이다… 예를 들어, 영국은 개별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논리적 구성물이란 사실을 부정하며 또 환원불가능한 전체론적 법칙들에 따라 발전해 나가고 도전에 응전해 나가는 주체는 유기체라고 주장하는 전체론자도 또한 그것의 개별적 구성원들 만이 직접 볼 수 있는 대상이며 그 구성원들을 지배하는 법칙들은 개별적 행위에 의해 조작적으로 정의되어 질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sup>10)</sup> (원 저자의 방점)

이 인용문은 Watkins가 존재론적 논지가 방법론적 논지를 논리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준다. 그는 양자의 관계를 논리적 연역의 관계라기 보다는 상호 지지(support)해 주는 관계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지지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은 분명하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이 논리적 필연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단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합리적이며 가망성(plausibility)이 있다는 정도를 나타내 줄 뿐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그의 명시적인 언급에도 불구하고 Watkins가 그의 저술의 많은 부분에서 존재론적 논지를 지지 이상의 정도로 제시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다. 방법론적 개체론의 원리 속에 존재론적 논지를 포함시킨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에게 가해진 비판들도 이러한 인상들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개체론과 전체론의 논쟁에 있어서, 존재론적 논지와 방법론적 논지는 연역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즉 한편의 수용 또는 부정은 다른 한편의 수용 또는 부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론 개체론의 존재론은 개체론의 방법론을, 전체론의 존재론은 전체론의 방법론을 지지해 줄 수 있으며 또 이것이 지금까지의 자연스런 경향이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양자의 관계는 논리적인 연역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개체론의 존재론적 논지는 방법론적 논지의 근거로서는 충분치 못하다. 그러므로 사회가 개인들로 이루어진 구성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사회 현상들이 개인들의 심리적 법칙에 의해 설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또 비개체론적 설명을 주장한다고 해서 전체론의 존재론을 수용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사회 현상들이 개체론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또 다른 근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만 한다.

이제 인간이 역사의 주체라고 하는 두번째 근거를 검토해 보자. 사회 현상들은 개인들에 의해 야기되었으며 역사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라는 주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평범한 주장이다. 아마도 Durkheim이나 Marx까지도 이것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sup>11)</sup> 그러나 문제는 이 주장 역시 개체론의 방법론적 논지를 직접적으로 증명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 주장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단지 인간의 역사와 사회 현상들이 절대정신과 같은 초월적 실재에 의해 만들어 지고 움직여 진다는 주장이 반박된다는 것 뿐이

10) Watkin[1952] p. 81.

11) 물론 이 주장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Durkheim은 사회를 하나의 사물(thing)처럼 간주하고 있으며 Marx는 역사를 필연적 법칙의 과정으로 보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역사는 결국 인간에 의해 움직여 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는 Goldstein[1958], Addis[1966], Miller[1978]을 참고할 것.

다. 사회 현상들이 개인들에 의해 야기되었다는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 사회 현상들이 개인들의 신념이나 경향들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explain) 것과 그것의 원인을 기술하는(describe) 것, 즉 그것이 누구에 의해 야기되었다는 것을 기술하는 것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그 사건을 야기했느냐 하는 것 보다는 그 현상의 사회 상황이나 배경, 또 그것이 어떤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때로는 더 중요할 때가 많다. 따라서 사회 현상들이 개인들에 의해 야기되었다는 사실 또한 그것들이 개체론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논지의 직접적인 근거는 될 수 없다.

개인들이 그것을 변경하기를 원한다면 변경될 수 없는 사회적 경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세번째 주장 또한, 여기에서의 개인이 익명적 개인까지 포함된 것인 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주장 역시 개체론의 방법론적 논지를 직접적으로 입증해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 주장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인간의 행위는 역사적 발전의 필연적 법칙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는 역사주의(historicism)가 부정된다는 것 뿐이다. 사회 현상들이 개인들의 의지에 의해 만들어 지고 또 얼마든지 변경가능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실에서 부터 거시적인 사회 현상이 개체론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주장은 추론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경가능성 주장 또한 개체론적 설명의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sup>12)</sup>

이상에서 본 것 처럼, Watkins가 방법론적 논지의 근거로서 제시하고 있는 세가지 주장은 모두 그것의 충분한 근거는 되지 못하고 있다. (1)(2)(3)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에서 부터 모든 사회 현상들이 개체론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추론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의 세가지 주장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사회는 초개인적 실재이며 역사는 이 사회를 지배하는 사회 법칙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하는 전체론-역사주의의 주장이 부정된다는 것 뿐이다(이 사실이 곧 모든 사회 현상들이 개체론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주장들은 개체론의 방법론적 논지에 대한 필요조건은 될 수 있어도 충분조건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상에서 사회적 설명에 있어서 방법론적 개체론의 근거의 빈약성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이 사실이 곧 그 반대, 즉 사회 현상들이 비개체론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직접적으로 입증해 주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비개인적인 설명이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데 필수적임을 입증하기 위해 개체론적 설명이 적용될 수 없는 다음의 세 가지 경우들을 살펴 보기로 하자.

첫째 방법론적 개체론은 어떤 제도나 사회적 상황이 주어지고 그 안에서의 개인들의 행위나 습관들을 연구할 때는 비교적 잘 적용된다.<sup>13)</sup> 방법론적 개체론이 경제학의 이론들에

12) 이 문제와는 별도로 이 주장에 대해 지적해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회 현상에 있어서 사람들은 논리적으로나 당위적으로 그것을 변경하려고 한다면 변경시킬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변경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어떤 식으로 행위하려는 경향성을 갖게 된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상황과 관계해서 행위의 규칙성들이 나타난다. 사회 과학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들과 관계된 규칙성들을 일반화시키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Watkins가 예로 든 경제학의 이론들도 바로 이러한 상황과 관계된 행위 규칙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13) 방법론적 개체론이 제도안에서의 개인들의 행위를 설명할 때는 비교적 잘 적용되는 이유는 그

비교적 잘 적용되는 것도 그것들이 사람들의 행위 경향이나 행동 양식에 관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의 대상이 사회적 상황내에서의 행동 양식이 아니라 이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상황이나 제도 자체가 될 때에는 그것은 잘 적용되지 않는다. 제도의 구조나 기능들은 개인들의 심리적 법칙으로는 전혀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개체론자들은 이러한 제도나 상황 자체를 다시 개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는 적어도 두 가지 난점이 있다. 그 하나는 사회적 상황을 다시 개인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사회의 기원에 까지 후퇴해 가야 한다는 점이다. 사회적 상황은 개인들에 의해 형성되며 이 개인들의 행위는 다시 그 이전의 또 다른 상황에 의해 발생하고 그 상황은 다시... 이런 식으로 연쇄의 사슬은 사회의 초기 상태에 까지 거슬러 올라 가게 된다. 이런 식의 시도는 결국 Popper가 심리주의에 대해 제기했던 반론과 동일한 반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도가 가지는 또 다른 난점은 제도나 사회적 상황에 대한 개인주의적 설명이란 그것이 개인들에 의해 만들어 졌다는 것 외에는 다른 식의 설명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한 것 처럼, 사회적 상황에 대한 설명은 그것이 누구에 의해 야기되었다고 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사회적 상황에 대한 설명은 그것이 누구에 의해 만들어 졌다는 것을 기술함으로써가 아니라 그것의 구조와 기능을 분석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예를 들면 은행 제도에 대한 설명은 그것이 어떤 사람들의 어떠한 의도에 의해 만들어 졌다는 것을 기술함으로써가 아니라 그것의 구조와 기능, 사회 속에서의 역할에 대한 분석등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다. 사람이 창조해 낸 대상은 사람이 그것을 창조해 내는 행위 또는 사건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제도와 같은 사회적 존재들은 개인들에 의존하고 있지만 개인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는 사회 과학의 이론들에는 개체론적 설명이 잘 적용되지 않는다.<sup>14)</sup>

둘째 개인들의 행동 양식을 연구하는 것들 가운데서도 개체론적 방법론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개별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행위들이 거시적 차원에서는 통계적 규칙성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Gellner가 지적한 것 처럼, 이 경우에는 각 개인들의 차이가 전체적 통계 결과의 차이 보다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개체론적 설명 보다는 전체 사회에 대한 거시적 설명이 더 단순하고 정확하게 된다.<sup>15)</sup> 따라서 양자역학에서 보는 것처럼

---

설명 도식이 사회적 상황과 그 속에서의 개인들의 대응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Mandelbaum이 '사회적 사실'(societal fact)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제시한 은행 제도의 예도 개체론의 설명 도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은행원들이나 은행 고객들의 행위는 그들이 속한 사회적 상황(즉 은행 제도)에 합리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14) Goldstein은 공시적(synchronic)사회 연구와 통시적(diachronic) 사회 연구의 구별을 이용하여 비슷한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방법론적 개체론은 공시적 사회 이론에는 잘 적용되지만 통시적 이론에는 잘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방법론적 개체론은 어떤 제도의 상대적 안정성이나 지속성을 전제하고 그 속에서의 개인의 행위를 설명하려고 할 때에는 잘 적용되지만, 이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분석에는 잘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Goldstein의 설명은 근본적으로 필자의 설명과 같은 맥락에 있지만 그 강조점에는 약간 차이가 있다. 그는 통시적 질문은 사회 문화적 법칙 체계의 재구성으로 답해 져야 하며 그 법칙은 사회 제도가 변화하게 되는 조건과 관련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반해, 여기에서는 제도의 객관적 구조는 행위나 경향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것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점을 더 강조하고 있다.

15) Gellner[1956], p.259.



럼, 이 경우들에서는 거시적·비개체론적 설명이 더 잘 적용되며 개체론적 설명으로의 환원은 불필요하게 된다.

셋째, Mandelbaum이 지적한 ‘추상적 유형의 기능적 법칙’들에서도 방법론적 개체론은 잘 적용되지 않는다. Mandelbaum에 따르면, 개인적 행위로 환원될 수 없는 거시적 사회 현상의 법칙들은 그 구분 기준에 따라 두 종류의 구분이 가능하다 ; (1) 기능적 관계 법칙(a law of functional relation)과 진향적(進向的) 변화 법칙(a law of directional change) (2) 추상적(abstractive) 법칙과 총체적(global) 법칙. 이러한 구분의 각각은 서로 결합하여 네가지 유형의 거시적-비개인적 법칙들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 세가지는, 그에 따르면, 경험적 탐구의 영역이 아닌 관계로 그것의 타당성이 의심스러운 것들이다. 그러나 추상적 유형의 기능적 법칙은 사회를 유기체 또는 전체(whole)로 보는 것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경험적 연구가 가능하며 그러면서도 그것은 개체론적 방법론이 적용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sup>16)</sup> 그의 설명처럼 어떤 시대에서의 사회 전체의 특정 측면들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개체론적 설명이 잘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생산 양식과 결혼 제도와의 관계, 인구 규모와 정치 조직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개인적인 것을 지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방법론적 개체론의 한계성은 이러한 경우들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 4. 비개인적 설명

개체론자들은 모든 거시적 사회 현상들에 대한 설명들은 실체적으로(in practice) 개체론적 설명으로 환원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in principle) 그러한 환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해 왔다. 일차적으로 이 주장은 원칙적으로도 환원이 불가능한 위의 세 가지 경우들에 의해 반박될 수 있다. 그러나 방법론적 개체론의 더 큰 문제점은 원칙적인 환원 가능성 주장에 근거하여 실제적인 환원을 주장한다는 점이다. 사회 과학의 이론들 속에는 원칙적으로 환원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환원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다. 만일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실제로는 환원이 어렵다면 왜 구태여 개체론적 설명으로의 환원을 수행해야 하는가? 더구나 거시적 설명이 더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다면 그것은 개체론적 설명으로 환원되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Watkins는 ‘유대 민족은 결집력이 강하다’(The Jewish race is cohesive)는 진술은 ‘유대 민족은 보통 유대인들과 결혼하며, 폐쇄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살며, 종교적 의식들을 공유하며, 기타 등등’으로 환원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17)</sup> 그러나 이 환원문은 Brodbeck이 지적한 것처럼

16) Mandelbaum의 설명에 따르면, 기능적 관계 법칙과 진향적 법칙은 각각 사회에 대한 공시적 법칙과 통시적 법칙의 다른 표현이며, 추상적 법칙과 총체적 법칙은 각각 전체의 특정 측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법칙과 전체가 부분에 관계하는 방식에 관한 법칙을 의미한다. 이 구분의 각각들이 상호 결합하여 다음 네 가지 유형의 거시적 법칙들이 나타나게 된다.

- (1) 기능적-총체적 법칙: 전체 사회 제도의 총체적 속성들과 그것의 특수한 제도와의 관계를 진술하는 법칙
- (2) 총체적-진향적 변화법칙: 전체로서의 제도가 변화해 나가는 패턴에 관한 법칙
- (3) 추상적-진향적 변화법칙: 특수한 제도들의 변화 법칙
- (4) 추상적-기능적 법칙: 특수한 제도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법칙

17) Watkins[1955], p.183.

럼 완결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채워져야 하는 개방(open-ended)문이다. 이것은 곧 환원이 불완전할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 자체로 이해될 수 있고 충분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문장을 불완전한 개인들에 관한 문장으로 환원시켜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물론 어떤 거시적인 설명이 개인적인 설명으로 보완됨으로써 더 완전해 질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거시적 설명들은 개인들의 경향성이나 신념들에 대한 진술들로부터 연역되거나 그러한 개체론적 설명으로 보완되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한 환원은 불필요하다. Goldstein이 제시한 인류학자 Murdock의 이론을 예로 들어 보자. Murdock의 이론에 따르면, 친족 명명 체계(kinship nomenclature)는 네 가지의 문화적 변형, 즉 결혼 규칙, 가족 형태, 상속 규칙, 주거 규칙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개인의 심리적 경향에 대한 언급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 대해 Watkins는 거주 규칙은 특정 지역 내에서의 모든 사람들에 의해 공유되어 있는 경향성이며 따라서 Murdock의 인류학 이론도 개체론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18)</sup> 그러나 Watkins의 주장처럼 이 이론이 개인의 심리적 법칙으로 환원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환원시켜야 할 필요는 없다. 제반 사회 과학의 이론이 개인의 심리적 법칙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개인적인 거시적 설명보다 더 복잡하고 불완전하다면 그것을 환원시키는 것은 불필요한 작업이다.

Popper는 심리주의를 비판하면서 Marx의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을 예로 들어 가면서 까지 '자율적인 사회학'(autonomous sociology)을 강조한 바 있다. Watkins 또한 거시적 사회 현상이 다른 거시적 사회 현상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그것은 다시 개체론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19)</sup> 그러면 이들이 자율적인 사회학이나 거시적인 설명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들은 다시 개체론적 설명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원적인 동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이들은 사회적 현상들이 '인간들에 의해 통제될 수 없는 자추진적인(self-propelling) 사회 법칙'의 필연적인 결과라는 전체론의 주장을 부정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개체론자들이 사회 현상들의 설명을 개체론적 설명으로 환원하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즉 모든 사회 현상들은 원칙적으로 개체론적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그것이 사회적 법칙의 필연적인 결과가 아님을 입증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18) recite in Goldstein[1958], pp.282~283.

19) 이것과 관계해서 여기에서 지적되어야 할 중요한 구별이 있다. 그것은 개인의 심리적 법칙이 거시적 설명을 구성을 시작하는 기초 자료로서 주어지는 것과 거시적 설명이 그것으로 환원되어 져야 하는 준거점으로 주어지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이다. 전자는 개별적 행위들에 대한 진술들을 자료로 하여 거기에서 부터 이론 구성의 작업을 시작하는 위로 향하는 과정이며, 후자는 주어진 거시적 설명을 개인적 행위들에 대한 진술들로 환원시키는 밑으로 향하는 과정이다. 전자가 종합적(synthetic)이라면 후자는 분석적(analytic)이라 할 수 있다. Scott의 분석에 따르면, 같은 개체론자이면서도 Hayek는 전자의 방법을 취하고 있는 반면, Popper는 후자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Watkins는 이 둘을 구별하지 못하고 혼합시키고 있다고 그는 지적한다. 그의 지적처럼, 그의 주장에는 이 두 가지가 뒤섞여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거시적 설명은 근원적 설명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것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자율적 사회학은 다시 개인주의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Popper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결과적인 환원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적 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본문의 비판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라면 모든 사회 현상들은 실제로도 개체론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방법론적 논지는 너무 강한 주장이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환원이 가능하다는 주장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면 방법론적 개체론자들이 이처럼 지나친 주장을 고집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그들이 방법론적 개체론 아니면 방법론적 전체론 이라는 잘못된 이분법(dichotomy)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비개체론적 설명=전체론적 설명'이라는 등식을 갖고 있다.

만일 방법론적 개체론이 인간들을 역사에 있어서 유일한 주체로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방법론적 전체론이 어떤 초인간적 주체, 혹은 초인간적인 요인들이 역사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 두 가지 견해가 선택할 수 있는 전부이다.<sup>20)</sup>

그러나 방법론적 전체론의 부정은 곧 방법론적 개체론의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어느 것도 아닌 제 삼의 입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환원될 수 없는 비개인적 설명이나, 또는 환원가능하다 하더라도 개체론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거시적 설명들은 개체론적 설명이 아니면서도 또한 전체론을 전제하지 않는다. 비개인적·거시적 설명들은 사회가 초개인적인 실재이며 사회 현상은 사회 법칙의 필연적인 결과라는 전체론의 주장과는 맥을 달리 한다. 먼저 원칙적으로 환원가능한(그러나 실제로는 환원되지 않은) 거시적 설명들이 전체론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원칙적으로 개인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환원가능하다는 것은 곧 그것이 전체 사회의 초월적 법칙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원칙적으로도 환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지적된 세 가지 경우 가운데서 어떤 것도 사회를 초개인적 유기체로 보는 입장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먼저 제도와 같은 사회적 존재들에 대한 설명은 사회를 유기체로 이해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사회 제도와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그것을 포함한 사회 전체가 개인들과는 독립된 초월적 실재라고 주장하는 것은 각기 다른 내용이다.<sup>21)</sup> 또한 Gellner가 지적한 통계적 일반화의 경우도 전체론과는 무관하다. 그 통계적 규칙성은 거시적 사회 법칙의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며 또 그것은 상황을 바꿈으로써 변경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Watkins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다) 또 Mandelbaum이 제시한 추상적 유형의 기능적 법칙이 전체론과 무관하다는 것도 분명하다. Mandelbaum은 전체론과 개체론의 이분법이 잘못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이것을 그 예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sup>22)</sup> 그러므로 비개인적 설명을 모두 전체론적 설명으로 취급해 버리는 것은 잘못된 이분법에 근거한 오류이다.

20) Watkins(1957), p.271.

21) 사회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제도는 개인적인 것으로 환원될 수 없다. 그러나 제도가 곧 사회인 것은 아니다. 사회는 제도를 통해 특별하게 연계된 개인들의 관계 체계이기 때문에 개인들을 초월하여 존재할 수는 없다.

22) Mandelbaum(1957)은 전체론과 개체론의 이분법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들에서는 총체적 법칙을 수용하더라도 전체론을 받아 들이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첫째 그 법칙이 체계의 구성요소적 측면들의 법칙에서 파생되었을 경우, 둘째, 체계의 한 구성요소와 전체로서의 체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법칙이 존재하며 또 이 전체의 속성을 부분이 결정하게 될 경우, 그는 개체론적 설명이 적용될 수 없는 네 가지 유형의 거시적 사회 법칙들 가운데서 방법론적 개체론자들이 부정하려고 하는 경우는 오직 총체적-진행적 변화 법칙 뿐이며 나머지는 전체론도 개체론도 아닌 경우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비개인적인 설명은 개체론적 설명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서도 개체론자들의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그것은 사회는 인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들이 없으면 사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수용할 수 있다. 이것은 사회가 절대 정신과 같은 초개인적인 실재라는 주장을 부정하고자 하는 방법론적 개체론의 의도와 일치 된다. 또 그것은 역사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며 초개인적인 사회 전체의 필연적 법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개체론자들의 주장에도 동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는 분명히 비개인적 설명은 개체론자들이 의도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회 현상이 개체론적 방식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회 현상들에 대한 개체론적 설명은 때로는 불가능하며, 때로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방법론적 개체론자들의 기본적 오류는, 사회가 초개인적 실재가 아니며 인간의 역사는 이러한 초개인적 실재의 필연적인 법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모든 사회 현상들은 개체론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방법론적 논지를 전개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적 개체론의 오류를 지적하기 위해 다음의 사실들을 입증하려고 시도했다; 첫째 사회가 인간들로 구성된 인공물이며 역사가 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 사실에서 부터 사회 현상에 대한 설명이 개인들의 심리적 법칙들에서 연역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다. 둘째 모든 사회적 현상들이 다 개체론적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 때로는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가 많다. 셋째 비개체론적 설명을 모두 전체론적 설명과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된 이분법에 근거한 오류이다. 이러한 사실들에 근거하여 이 논문은 사회 과학에 있어서 어떠한 사회 현실의 설명들은 비개인적인 설명이 될 수 밖에 없으며 또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개체론자들의 기본적인 의도와 배치되지는 않는다고 결론짓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개체론적 설명 방식이 사회 현상의 설명에 전혀 적용될 수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다만 개체론적 방법론이 사회 현상의 설명에 있어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주장할 뿐이다. 다시 말해서 심리적 법칙이 사회 현상의 설명에 관계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어떤 경우들에서는 개인적 행위 법칙에 대한 지식이 그들 행위의 결과를 설명하는데 적합치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할 뿐이다.

참 고 문 헌

1. 이한구, 1980. "방법론적 개체론과 전체론", 『사회과학의 철학』, 서울 : 민음사.
2. Addis Laird, 1966. "The Individual and the Marxist Philosophy of History", in Brodbeck [1968].
3. Brodbeck May, 1954. "On the Philosophy of Social Sciences", in O'neill[1973]  
1958.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 Definition and Reduction", in Brodbeck[1968].  
1968. *Readings in the Philosophy of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 Inc.
4. Chalmers Alan, 1985.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 An Incongruity in Popper's Philosophy", in Currie G. and Musgrave A. (eds.) [1985].
5. Currie Gregory, 1984. "Individualism and Global Supervenience", *British Journal for the philosophy of science* 35.
6. Currie Greory and Musgrave Alan(eds.), 1985. *Popper and the Human Sciences*, Dordrecht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7. Gardiner Patrick, 1959. *Theories of History*, New York : The Free Press.  
1959. "Reply to Mr. Watkins", in Gardiner [1959].
8. Gellner Ernest, 1956. "Holism Versus Individualism", in Brodbeck[1968].
9. Goldstein Leon. J., 1956. "The Inadequacy of the Principle of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in O'neill[1973].  
1958. "Two Theses of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in O'neill[1973].
10. Lukes Steven, 1968.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Reconsidered", in Ryan[1973].
11. Maclver A. M., 1947. "Levels of Explanation in History", in Brodbeck[1968].
12. Mandelbaum Maurice, 1955. "Societal Facts", in O'neill [1973].  
1957. "Societal Laws", in O'neill[1973].
13. May Larry, 1987. *The Morality of Groups*, Notre Dame : Univ. of Notre Dame Press.
14. Miller Richard, 1978.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and social Explanation", *Philosophy of science*, 45.
15. Nagel Ernest, 1961. *The Structure of Science*, London : Routledge & Kegan Paul Ltd.
16. O'neill John (ed.), 1973. *Mod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London : Heinemann Educational Books Ltd.
17. Papineau David, 1985. "Social Facts and Psychological Facts", in Currie G. and Musgrave A. (eds.) [1985].
18. Popper Karl, 1960. *The Poverty of Historicism*, 2nd ed., London : Routledge & Kegan Paul.  
1966.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vol.2. fifth ed., London : Routledge & Kegan Paul.
19. Reed Edward, 1978. "Group selection and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 A Criticism of Watkins", *British Journal for the Philosophy of science*, 29.
20. Ruven David-Hillel, 1983. "Social Wholes and Parts", *Mind*, XCII.

21. Ryan Alan. 1973. *The Philosophy of Social Explanation*. London : Oxford Univ. Press.
22. Scott K. J., 1961. "Methodological and Epistemological Individualism". in O'neil[1973].
23. Watkins J. W. N., 1952. "Ideal Types and Historical Explanation". in Ryan[1973].  
1955.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 A Reply" in O'neil[1973].  
1957.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and social Tandencies". in Brodbeck[1968]